

Weekly Brief
R&I trends in **Europe**

KERC R&I News

EU 연구혁신 정책 및 연구 동향

2023.04.26.

Content

▶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

- ① 집행위,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공공 의견수렴 결과 발표(4.19)
- ② 집행위, 한국 포함 주요국과의 디지털 외교 추진 현황 발표(4.18)
- ③ Chips Act, 반도체 이니셔티브에 HE 예산 7,500만 유로 투입
- ④ 집행위, 디지털 기술 교육·훈련을 위한 권고안 2개 제안(4.18)
- ⑤ 집행위, 유럽 표준화 관련 패널 설문조사 계획(4.24)

▶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

- ① JRC, '하이브리드 위협'에 대한 보고서 발표(4.20)
- ② 사이언스유럽, 기후 중립 전환을 위한 학제간 연구에 대한 보고서 발표(4.20)
- ③ 6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, 그 이유는?

▶ EU 연구성과

- ① 사용자의 감정과 조화를 이루는 커넥티드 자율주행차



1.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

① 집행위,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공공 의견수렴 결과 발표(4.19)

- 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(DG RTD)은 지난 2월에 마감된 ‘EU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의견수렴’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함
 - 이해관계자와 시민은 공공 의견수렴을 통해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순위와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
 - 이번 공공 의견수렴은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2020(2014~2020) 및 Horizon Europe(2021-2027)의 성과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, 차기 HE 전략 계획 2025-2027의 방향성을 형성하기 위해 진행됨
 - 총 2,788개의 응답과 265개의 입장서가 제출되었으며, 이 중 2,558건의 답변과 108건의 입장서가 EU 연구혁신 펀딩의 미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와 우려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차기 전략 계획의 방향에 대한 답변을 제공함
 - 공공 의견수렴 결과 주요 내용
 - 응답자들은 향후 10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‘기후 변화’, ‘에너지 공급’, ‘생물다양성’, ‘의료시스템 및 고령화’를 선정함
 - 전략 계획의 구조에 대해 응답자들은 ‘현재 구조가 복잡하므로 단순화가 필요하다’고 지적하였고, 일부는 전략 계획이 이해하기 어려우며, 문서에 대한 접근이 더 쉬워야 한다고 지적하였음
 - 공공 의견수렴 결과는 차기 HE 전략 계획 2025-2027 및 워크프로그램에 반영될 예정이며, 오는 5월에 발간되는 전략 계획 분석 문서에 포함될 예정
- ※ 전략계획은 호라이즌 유럽(HE)의 정책 우선순위와 기대 파급효과를 설정하며, 이는 HE의 필라2와 그 연구 주제를 다루는 워크프로그램의 기초를 형성함

<출처: https://research-and-innovation.ec.europa.eu/news/all-research-and-innovation-news/results-public-consultation-future-eu-research-and-innovation-programmes-are-now-public-2023-04-19_en>

<다운로드: https://research-and-innovation.ec.europa.eu/system/files/2023-04/ec_rtd_he_consultation_synopsis.pdf>

2 집행위, 한국 포함 주요국과의 디지털 외교 추진 현황 발표(4.18)

- 집행위는 지난 4월 18일 EU이사회 '텔레콤 워킹그룹' 회의에서 주요 제3국과의 향후 디지털 외교 추진 방향을 브리핑함
 - 해당 브리핑은 미국 및 인도와의 무역기술위원회(TTC), 일본·한국·싱가포르·캐나다와의 디지털 파트너십을 다룸
- 한-EU 디지털 파트너십
 -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간의 장관급 협의체 회담은 오는 6월 30일로 잠정 예정된 상태
 - EU의 최상위 의제는 반도체에 있으며, 집행위는 한국 산업체의 EU 역내 투자를 촉진하고 첨단 반도체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를 원함
 - 특히 EU의 디지털서비스법(DSA), 디지털시장법(DMA), 인공지능법(AI Act)과 관련하여 규제 수렴도 최우선 과제에 있음
 - 더하여, 파트너십에는 국제 표준화 포럼에서의 공통 비전 구축을 위한 AI 및 6G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연구 협력 및 공통 비전 개발, HPC 및 양자 컴퓨팅에 대한 연구 교류도 포함되어 있음
 - 또한 유럽 통신사들이 '공정분담' 제안의 모델로 한국을 참고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집행위는 '땅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 분담'에 관련하여 정보 교환을 원하고 있음
- 디지털 파트너십(일본, 싱가포르, 캐나다)
 - (일본) EU-일본 정상회담은 7월 3일과 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, EU의 우선순위는 공동 모니터링을 통한 전략적 공급망의 탄력성 강화로, 양국은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에 협력할 예정
 - 더하여 EU는 일본과 6G 연구개발, 고성능컴퓨팅(HPC), 양자 기술 기반 위성 통신, 데이터 무역 등에 대해 협력할 방침

- (싱가포르) EU-싱가포르 디지털 파트너십은 '23년 2월에 시작되었으며, 집행위의 우선순위로는 디지털 ID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, AI 거버넌스 및 표준,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위한 모범사례 공유 등이 있음
- (캐나다) 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와의 디지털 대화(Dialogue)를 인공지능, 연구개발, 연결성 및 사이버보안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

○ 무역기술위원회(미국, 인도)

- (미국) 집행위와 미국 행정부는 오는 5월 31일 현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에서 개최되는 제4차 TTC 고위급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무역, 신형 기술 및 경제 안보에 대한 협력, 디지털 인프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
- EU는 2년에 걸친 TTC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, 이에 따라 집행위는 이번 회의에서 표준화, AI 및 반도체 협력, 제3국 5G 인프라 프로젝트, 플랫폼 관련 디지털 인권 등 신형 기술에 분야에 대한 성과 도출에 집중할 예정
- (인도) 집행위는 EU-미국 TTC를 모델로 '22년 4월 인도와 유사한 대화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, 오는 5월 15일과 16일에 첫 번째 장관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
- 양측은 HPC/양자컴퓨팅, AI, 표준화, 디지털 기술,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상호 운용성 및 보안에 중점을 두고 협력할 예정

<출처 : <https://www.euractiv.com/section/digital/news/commission-updates-eu-countries-on-digital-diplomacy-initiatives/>>

③ Chips Act, 반도체 이니셔티브에 HE 예산 7,500만 유로 투입

○ EU,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 예산 33억 유로에 동의

- 반도체칩법(Chips Act)의 유럽반도체이니셔티브(Chips for Europe Initiative)는 33억 유로의 EU 예산으로 EU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※ 동 이니셔티브는 EU 예산 33억 유로에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더하여 총 430억 유로를 동원할 것으로 기대
- 해당 이니셔티브의 예산 중 7,500만 유로는 호라이즌 유럽(HE)에서 지원되며, 3억 2,500만 유로는 디지털유럽프로그램(DEP)에서 지원됨
- ※ 본래 집행위원회는 HE 미사용 자금 중 4억 유로를 Chips Act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, 지난해 EU 이사회는 이를 거부하였으며, 현재 두 달간의 협상 끝에 EU는 7,500만 유로로 타협을 보
- ※ 한편, 유럽의회는 칩법을 위한 새로운 자금을 요구한 바 있으며, 일부 의원은 칩법에 대한 투자를 위해 사이버보안과 같은 다른 우선순위의 예산을 가져온 것에 불만을 포함

○ 칩법을 위한 호라이즌 유럽 HE 자금의 출처는?

- 매년 EU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할당된 자금의 5%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, 이러한 미사용 자금의 일부는 다시 프로그램에 반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고 있음
- 955억 유로 규모의 HE의 경우 7년에 걸쳐 약 5억 유로가 사용되지 않고 반환될 것으로 예상됨
- 칩법을 위한 HE 자금 7,500만 유로는 이러한 미사용 자금으로부터 투입되며, 결과적으로 HE는 7,500만 유로의 자금이 적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임

○ 33억 유로,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?

- 33억 유로 예산은 민간 파트너십인 칩공동사업단(Chips JU)에 약 29억 유로, InvestEU를 통해 약 1억 2,500만 유로, 유럽혁신위원회(EIC)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에 약 3억 유로가 사용될 예정

<출처 :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ICT/eu75m-be-diverted-horizon-europe-budget-deal-reached-chips-act>>

4 집행위, 디지털 기술 교육·훈련을 위한 권고안 2개 제안(4.18)

- 집행위원회는 유럽 기술의 해외 맥락에서 EU 회원국과 교육·훈련 부문의 디지털 교육 제공을 지원하는 두 개의 권고안을 제안함
 - 집행위는 회원국과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학습 및 교류를 촉진하고, 디지털 교육 및 기술에 관한 고위급 그룹을 구성하여 두 권고안의 이행을 지원할 예정
 - 집행위는 EU 전역에서 디지털 기술 자격증에 대한 신뢰와 수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회원국과 함께 '유럽디지털기술자격증' 파일럿 프로젝트를 운영할 예정
- ※ 이를 통해 시민들은 고용주, 교육 제공자 등으로부터 디지털 기술 자격을 빠르고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(인증서는 파일럿 결과를 기반으로 '24년 출시될 예정)
- 성공적인 디지털 교육·훈련을 위한 핵심 요소에 대한 이사회 권고안
 - 동 권고안은 모든 회원국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포용적이고 고품질의 디지털 교육·훈련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
 - 이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디지털 교육을 위한 일관된 투자, 거버넌스 및 교육자 훈련 프레임워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권고안은 언급함
 - 권고안은 교육·훈련 관계자가 주도하는 상향식 혁신 및 디지털화 문화, 범정부 및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회원국이 따를 수 있는 지침과 조치를 제시함
- 교육·훈련 분야 내 디지털 기술 제공 개선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
 - 동 권고안은 회원국이 교육·훈련의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기술을 제공할 것을 촉구함
 - 이를 위해 회원국은 모든 수준의 교육·훈련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제공해야 하며, 이는 점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디지털 기술 습득에 접근하기 어려운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해결방안을 만듦으로써 보장될 수 있음
 - 권고안은 회원국이 학교에서 고품질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, 성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을 주류화하고, 포용적 전략을 채택하여 IT 전문직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함

<출처 : 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ip_23_2246>

5 집행위, 유럽 표준화 패널 설문조사 계획(4.24)

- 집행위는 표준화를 통한 연구혁신 결과 활용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'유럽 표준화 패널 설문조사'를 실시할 계획
 - 설문조사는 ▲표준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를 식별하고, ▲EU R&I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 산업계의 표준화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평가에 기여하고, ▲산업계를 위한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육성하는 것을 지원할 것
 - 이 설문조사 모든 EU 회원국을 포괄하는 EU 산업의 대규모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며, 다양한 규모와 기술 영역의 기업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
 - 조사 결과는 궁극적으로 정책 입안자, 업계 대표 및 표준화 기구를 위한 권장 사항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R&I 기반 표준에 대한 업계의 수요와 현재 공급 간의 조화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
 - 권장 사항은 공공 R&I 프로그램의 미래 수혜자가 프로젝트 결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를 사용할 기회와 기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- ※ 설문조사는 Technopolis Consulting Group Belgium이 이끄는 컨소시엄이 수행하며, Fraunhofer Institute for Systems and Innovation Research가 참여함
- ※ 조사결과는 '23년 4분기에 발표될 예정

<출처 : https://research-and-innovation.ec.europa.eu/news/all-research-and-innovation-news/commission-plans-launch-european-standardisation-panel-survey-2023-04-24_en>

2.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

1 JRC, ‘하이브리드 위협’ 에 대한 보고서 발표[4.20]

- JRC는 정책 입안자들이 하이브리드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다룬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함(4.20)
 - 동 보고서는 하이브리드 위협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, 적대적인 행동에 대응하고, 유럽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함
- 증가하는 하이브리드 위협
 - 하이브리드 위협은 지방, 지역, 국가, 기관 수준에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상을 약화시키거나 해를 입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동을 의미함
 - 최근 허위 정보, 경제적 압력, 이민자 확대,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유형의 도구와 조직적인 행동을 결합하며 하이브리드 위협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음
 -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, 선거 간섭, BREXIT 캠페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하이브리드 위협은 실제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포괄적 탄력성 생태계(CORE) 모델
 - JRC가 유럽하이브리드위협대응센터(Hybrid CoE)와 협력하여 준비한 ‘포괄적 탄력성 생태계(CORE)’ 모델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(정부, 시민, 서비스 등)과 다양한 수준 간(국제, 국가, 지역)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하이브리드 위협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
 - CORE 모델은 정책 입안자가 EU, 회원국 또는 기타 수준에서 적대적인 활동에 대응하여 동원할 자원, 도구 및 조치를 결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전략적 대시보드 역할을 함

<다운로드 : <https://publications.jrc.ec.europa.eu/repository/handle/JRC129019>>

2] 사이언스유럽, 기후 중립 전환을 위한 학제간 연구에 대한 보고서 발표(4.20)

○ Interdisciplinarity for the Net-Zero Transition

- 동 보고서는 COP27을 앞두고 '22년 11월에 개최된 '기후 중립 전환을 위한 학제간 연구'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을 요약함
- 심포지엄에서는 대학과 연구 기관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, 패널은 다른 조직이 기후 중립 전환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기관의 경험 및 모범사례 등을 발표함

<출처 <https://www.scienceeurope.org/our-resources/interdisciplinarity-for-net-zero/>>

3] 6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, 그 이유는?

○ 세계 행복 보고서 2023, '핀란드 6년 연속 1위'

- 매년 3월 발행되는 '[세계행복보고서 2023](#)'에서 핀란드는 6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됨 (한국 57위)
-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John Helliwell 교수는 [CNN 보도자료](#)에서 핀란드인이 행복한 삶의 방식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함
- 핀란드 알토 대학의 강사이자 행복의 기초를 연구하는 심리학 연구자인 Frank Martela는 '23년 1월 [CNBC 기사](#)에서 핀란드인들이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를 제시함

○ 첫째, 핀란드인은 자신을 이웃과 비교하지 않음

- 핀란드에는 '자신의 행복을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말라'는 핀란드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으며, 핀란드인들은 특히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이러한 삶의 자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음
- 행복의 첫걸음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,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라고 Frank Martela는 조언함

○ 둘째, 핀란드인은 자연의 혜택을 무시하지 않음

- '21년 조사에 따르면 거의 핀란드인의 거의 90%가 자연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음
- 핀란드의 근로자는 4주간의 여름휴가와 1주일의 겨울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자연이 있는 시골은 가장 인기있는 휴가지임
-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삶의 활력과 웰빙을 증가시키고 성장감을 줄 수 있으므로, 집에 식물을 배치하는 등 삶에 자연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Frank Martela는 조언함

○ 셋째, 핀란드인은 커뮤니티 내에서 신뢰의 고리를 끊지 않음

- '22년 시민의 정직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[사회 실험](#)에서 볼 수 있듯이 핀란드인은 서로를 신뢰하며, 정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
- 전 세계 16개 도시에서 총 192개의 지갑을 길거리에 떨어뜨리는 실험에서 핀란드 헬싱키의 시민들은 지갑 12개 중 11개를 주인에게 돌려주며 1위를 차지하였음
- 개인은 커뮤니티에 어떻게 기여하고, 신뢰를 만들어내고, 그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Martela는 조언함
- 특히, Martela는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거나, 기차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도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

<출처: <https://cordis.europa.eu/article/id/443152-why-is-finland-the-world-s-happiest-country-6-years-in-a-row>>

3. EU 주요 연구성과

1 사용자 감정과 조화를 이루는 커넥티드 자율주행차

○ 프로젝트 개요

- EU가 지원하는 SuaeVE 프로젝트는 사용자들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함
- 인간 중심의 설계 작업은 유럽이 빠르게 성장하는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
○ 자율주행차의 안전 및 신뢰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젝트

- 운전자들은 곧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교통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며, 여가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그러나 자율주행에 대한 대중의 수용은 자율주행차가 얼마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식되느냐에 달려있음
- 때문에 EU는 Trustonomy, DriveToTheFuture, SUaaVE와 같이 자율주행차의 수용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

○ 공감 능력이 있는 인간-기계 인터페이스(HMI)

- SUaaVE는 인간 중심 설계를 통해 사용자를 설계 프로세스에 참여시킴으로써, 승객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차량 기능을 조정하는 ‘공감 차량’을 개발하고자 하였음
- 운전 환경과 운전자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‘감정 인식’ 연구는 ‘커넥티드 자율주행 차량(CAV)’에서 시스템이 개인맞춤형 지원 및 시정 조치를 제공하도록 도움으로써 사람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음
- 이를 위해 SUaaVE는 웨어러블 장치로 승객의 감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사용하여 생리학적 데이터에서 감정 상태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함

※ 웨어러블 장치와 같은 감정 인식 시스템은 향후 차량 내 카메라로 대체 가능

- 이 모델은 SUaaVE의 매우 인간적인 인간-기계 인터페이스(HMI)를 생성하기 위해 ALFRED*의 AI에 통합되었음

* ALFRED: “자동화 수준 4+ 신뢰할 수 있는 공감 드라이버”의 약어

- 감정 인식 모델은 HMI 및 기타 편의 시스템이 승객의 감정 및 인지 상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운전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음
- 또한 동 모델은 ‘동물이 자동차 앞에서 달릴 때’의 대처 방법과 같은 윤리적 고려 사항이 포함된 승객에 맞춘 의사 결정을 지원함

○ 인간 중심 설계를 위한 가상 운전 시뮬레이션

- SUaaVE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다양한 차량 기술과 행동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와 수용을 평가하기 위해 가상 인간 중심 설계(V-HCD) 플랫폼인 가상 운전 시뮬레이터를 만듦
- V-HCD 플랫폼은 차량 내 탑승객의 관점뿐만 아니라 운전자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와 같은 다른 도로 사용자의 관점에서도 인간과 CAV 간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함
- 이러한 결과는 노인, 청소년, 장애인 등을 포함한 미래 승객의 경험을 향상하기 위한 설계 전략에 영향을 미쳤으며, V-HCD 플랫폼은 CAV 라는 새로운 개념을 탐구하고 대중을 교육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것을 도울 것으로 기대

○ 커넥티드 자율주행차(CAV)의 수용 확대를 위한 전략

- SUaaVE 연구에서 얻은 통찰력은 잠재적인 CAV 사용자와 (CAV 및 ALFRED의 수용을 강화해야 하는) 기타 도로 사용자를 위한 전략의 수립으로 이어짐
- 예를 들어, CAV 사용 경험은 일반적으로 CAV에 대한 인지된 안전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,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의 첫 CAV 경험은 잠재적인 사용자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었음

- 또한, 잠재적인 CAV 사용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은 더 환경친화적인 차량을 더 쉽게 수용하므로 이를 마케팅에 반영해야 할 것임
- SUaaVE 결과는 유럽의 자동차 설계자가 인간 중심 설계 접근 방식을 통해 인간적 요소를 더 잘 통합하여 자율 주행 기술에 있어 대중의 수용과 유럽의 리더십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

SUaaVE

- 펀딩 : Horizon 2020 - EXCELLENT SCIENCE - FET
- 기간 : 2019.05.01.~2022.10.30.
- 예산 : 약 390만 유로 (EU 전액 지원)
- 총괄 : INSTITUTO DE BIOMECANICA DE VALENCIA (스페인)

<출처 : <https://ec.europa.eu/researchandinnovation/en/projects/successories/all/buildingautotechvehiclesaretureyouremotion>>